

도난문화재 선의취득 대상 제외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매매업 허가제 전환 시행도

앞으로 도난문화재의 경우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문화재매매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사찰경내지 발굴문화재의 소유권 증명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278호)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불교계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도난문화재에 대한 민법의 선의취득 적용 배제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개정 문화재보호법 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 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

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는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장물이나 지정문화재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난문화재 소유자가 선의로 취득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문화재를 구입할 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선의취득' 논란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다만, 선의 취득한 문화재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지급한 대가만 변상하면 되겠다는 의의가 있다. 최근 모 사찰의 도난행위를 구입한 소유자가 구입 금액의 예닐곱 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 경우와 같은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문화재의 불법유통과 문화재매매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그간 신고제로 운영해오던 문화재매매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됐다. 문화재매매업자는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하거나,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했거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만 한다.

또한 불교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매장문화재 소유권 관련 조항도 다소 완화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의 경우 90일 이내에(기존 30일)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법상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므로 취득방법에 구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든가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문화재의 건전한 매매질서가 확립되고 문화재 도난사고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매장문화재의 경우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화재에 한해서만 소유권 판정을 하도록 했으므로 해당사찰이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보호법의 미비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oy@buddhapia.com

봉원사서 서울연꽃축제 개최

제5회 서울연꽃축제가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신촌 봉원사 특설 도랑에서 열린다.

봉원사(주지 환우)와 연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연꽃축제는 13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300여 종의 연꽃이 선 보일 예정이다. 축제기간에는 부대행사로 연꽃 사진전과 묵화전, 연꽃으로 만든 도자기 전시, 연꽃차 시음회, 청소년 참가 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연꽃축제 집행위원장 선임 스님은 "이번 축제는 연꽃을 소재로 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삭막한 도심에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회계사, 토요 가족예술제 마련

최근 서울 회계사(주지 수경) 경내에 평상 8개가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얻은 이름은 '회계사(주지) 회계사를 위한 사람들'이다. 일요일이나 주말에는 불우이웃돕기 찾집을 운영하기도 한다.

회계사(주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평상이라는 열린공간을 '문화가 숨 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가족예술제를 마련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회계사에 가면 가족과 함께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한여름 밤의 정취감을 맛볼 수 있다. (02)902-2663 남동우 기자

간화선 입문 희망자 30명 모집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8월 11~14일 경북 봉화 축서사에서 진행되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화두 참선으로의 초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고우 스님의 법문과 혜산 스님의 참선 지도, 예불과 108배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8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제6기 일반과정 참가자도 모집한다. (02)735-2428. 여수령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가족치료 특강

가깝고도 먼 존재, 가족. 가족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가족간의 관계는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까?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미아)이 '가족치료'를 화두로 8월 월례특강을 개최한다. 8월 오후 4시 조계사교육관 2층 4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이기영 소장(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이 가족상담 기법을 통해 가족과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비 5000원. (02)737-8803 여수령 기자

불교가 말하는 '삶·죽음·해탈'

2007 교수불자대회, 8월 20일부터 평창 월정사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가 주최하는 '2007 한국교수불자대회'가 '생로병사와 해탈'을 주제로 8월 20~22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다.

김용표 교수는 "불교의 생사관과 해탈관을 조명하고 웰빙과 수행의 접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20일 대법전에서 열리는 결례식에서는 고우 스님(금봉암 조씨)이 '생사일대사와 해탈'을 주제로 법문하고, 김용정 명예교수(동국대)가 기조 강연한다.

21일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이 '생로병사와 해탈' '웰빙과 불교수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사기 털

라카라트네(스리랑카 켈로니아대학)의 '테라바다 불교에서의 삶과 고통과 죽음 그리고 해방', 에니 N. 사피로(미국 나로파 대학)의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 글로리아 윈슬로우 브룩스의 '불교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비롯한 2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22일에는 '공동체와 불교' '인간성리, 과학과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등을 주제로 분과별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산사음악회와 참선·108장회·결기명상·요가 등의 수행법 체험, 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02)720-6618

여수령 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창립 1주년 법회

불우환우 돕기 일일찾집 행사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창립 1주년을 맞아 7월 20일 여여선원 8층 대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원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살생계(不殺生戒)는 단순히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부산지역본부 창립 초심으로 돌아가 생명나눔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대성 스님(범어사)

주제는 '현대의 생명경시풍조 가운데 나누어 주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여타의 다른 단체보다 의미가 있다'며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보는 대생명주의사상의 실천이 되는 뜻 깊은 단체가 되어 줄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법회에서는 난치병 환우 박소원(18,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어머니 조성자씨에게 범어사 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의 '자선 바자회' 수익금 전액이 전달됐다.

한편 이날 여여선원 2층 보솔밭집에서는 '불우환우 돕기 일일 찾집'이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하성미 기자

지은 스님 자비다선 강좌 부산 미타선원 교육원서

부처님의 자비를 차와 명상으로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자비수관 자율정진모임인 부산수심회(회장 김석자)는 동화사 강주 지은 스님을 법사로 '자비다선 2기' 및 '자비수관' 강좌를 연다. 자비다선 2기는 8월 1일부터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

분 부산 미타선원 교육원에서 마련된다. 자비 다선은 차를 통해 명상하는 방법으로 마음의 연상작용을 이용하는 수행법이다.

자비수관은 관세음보살님의 손을 연상하며 몸의 촉감을 알아채는 명상법이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지은 스님은 2006년 성주에 자비명상센터를 건립하고 자비선사 회중기 27기 및 '자비수관' 강좌를 연다. (051) 253-8687 하성미 기자

“笑·蔬·小’ 사찰음식 지혜 배워야”

(즐겁게, 채식위주로, 적게 먹는)

불교학연구회, 부산 해월정사서 '불교 음식문화' 워크숍 개최

수년 전부터 사찰음식이 현대인들의 건강한 생활의 대안으로 떠올라 관련 서적이나 강좌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진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는 수행을 위한 음식으로서의 선식(禪食)과 일반적인 의미의 채식(菜食)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가)가 7월 21~22일 부산 해월정사에서 개최한 여름워크숍의 주제를 '불교에서의 음식문화'로 정한 것은 수행과 음식의 관계를 올바르게 밝혀보자는 뜻에서다.

21일에는 사찰음식연구가인 선재 스님(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장이 참석해 '불교 음식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오늘날 사찰음식이 '건강식'으로만 비춰지는데, 선식은 생명 유지와 더불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사찰음식의 지혜로 스물거른 마음으로 먹고(笑食) 채소를 주로 먹고(蔬食) 적게 먹



'불교에서의 음식문화'를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에서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의 지혜를 전했다.

는(小食) 삼소식 △정결하게 조리할 것 △삼덕(三德)과 욕미를 갖출 것 △생태리듬에 맞고 제철 음식을 먹는 바른 식습관을 기질 것 등을 꼽았다. 또한 조리하고 먹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고, 섭생하는 사람의 근기와 목적이 맞게 먹고, 조리와 식사 과정이 법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도부에 나타난 식생활에 대한 교황"을 발표한 지상 스님은 "두타행이라는 원칙에 얽매지는 수행생

활만이 능사가 아니며, 중도적 삶을 지향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과 시대에 맞는 운동성 있는 공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심준보 전임연구원(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은 '출재가 나타난 마늘의 연구'에서 "초기 교단 시대의 인도 사회에서는 마늘에 대한 금기가 강하지 않았으나, 약취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금기가 강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미 기자

봉은사 대입 무료특강

수험생 집중공부법 강연 등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8월 1~7일 '대학입시 무료특강'을 개최한다.

1일 열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금강선원 원장인 해거 스님이 '수험생을 위한 15분 집중공부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2일에는 이석록 메가스터디 평가연구소장이 '대입 수능 D-100 전략'을, 3일에는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실장이 '2008학년도 대학입시 경향 분석'을 지도한다. 4일에는 사찰음식연구회장인 흥승 스님이 '수험생을 위한 건강음식'을, 7일에는 이인수 한의학 박사가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와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봉은사는 "수험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입시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의는 오전 11시 법왕루에서 진행된다. (02)3218-4821 여수령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3년과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학과	교과목	교수
불교학과(2년)	· 법회사상 · 범어사상 · 회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등 18과목	무진경스님(본대학학장)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정인스님(승가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사정호스님(삼원사주지) 등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 주역(2), 한자학원론, 실문해지,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2), 삼국유사(1)	임재우(연세대교수),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교과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황안홍(원광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승가대교수), 제1차(1)(2), 차도론한국의 한다예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진원교수, 지은스님, 적경스님, 오양기교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법,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전통국대), 벌인스님
불교경제문화학과(2년)	· 경제학개론, 경제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징학 등	김미혜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물),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한문학과(명부생50명) · 불교다도학과(명부생50명) · 불교미술학과(명부생30명) · 불교경제문화학과(명부생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명부생3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2007년 8월 1일 ~ 2007년 9월 4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경제문화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동산만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3. 개강일시 불교학과: 8월 4일(토), 한문학과: 9월 6일(목)
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경제문화학과,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 4일(화)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